

대하소설

해란강

1

리태수

세전이벌에
봄이 왔다

연변인민출판사

대하소설

해란강

1

리태수

세전이벌에
봄이
왔다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봉웅, 최문섭

책임교정: 김홍화, 최순란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海兰江. 1, 瑞甸来春: 朝鲜文 / 李泰洙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

ISBN 978-7-5449-0106-2

I. 海… II. 李… III. 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04586号

海兰江(1) 瑞甸来春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787×1092 1/16 插页:3 印张:20 字数:246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106-2 (民文)

版次: 2008年2月第1版

2008年2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28.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서 장

백두산에서 련련히 뻗어내린 남강산맥과 액령산맥의 분기점인 증봉산, 계관라즈산자락에 세월의 할미가 떨어뜨리고 간듯한 거울같이 맑은 련못이 있다. 수만척 지심을 용하게도 뚫고 솟아오르는 샘물이 련못가녘을 넘쳐흘러 마치 사냥군을 본 노루마냥 관목숲을 헤집고 내리쫓지다가 안개 자오록한 버들방천에 이르러서야 시름을 놓은듯 허리통을 풀고 천천히 걸음을 놓는다. 이것이 발원지에서 산비탈을 땀기오리처럼 이어내려온 해란강이다. 만족어로는 해란비라, 느릅나무라는 뜻이다.

해란강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물결처럼 흐르고있다.

옛날, 비암산아래마을에 해라는 총각과 란이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

기 무시무시한 액운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지동치는듯한 우뢰가 울고 거먹구름이 타래치더니 뒤미처 그 와중에 뿔이 난 마귀가 나타나 란이를 잡아갔다. 마을사람들은 겨불 당기듯 한결같이 쟁기를 메고 일떠났고 해는 장검을 뽑아들고 앞장서 마귀와 싸웠다. 조화가 무쌍하고 도적같은 마귀인지라 해의 비범한 칼재주에 모가지가 두번이나 끊어졌어도 번마다 땅에 떨어진 대가리가 풀뚝풀뚝 뛰며 제자리에 올라가 붙는 것이었다. 벌써 하루가 기울어 저녁해가 비암산뒤로 누엿누엿 지고있었다. 어두워지면 란의 목숨이 해빛처럼 가뭇없이 사라지게 될판이었다. 조금도 지체할수 없었다. 해가 강물로 목을 추기고 또 마귀와 접전하려는 때 저쪽에서 치마폭을 걷어안고 달려오는 녀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란이었다. 란의 부름소리에 마귀가 그쪽에 눈길을 주는 순간 해가 마귀의 목덜미를 번개같이 내리쳤다. 썩뚝 떨어져나간 마귀의 대가리가 뚝뚝 뛰며 제자리에 붙으려는 때 란이가 제격 치마폭에 담고 온 재를 끊어진 자리에 휘익 뿌려놓았다. 그래서 마귀는 대가리가 다시 붙지 못하고 죽고말았다. 마을사람들은 환성을 올리며 해의 용감성과 란의 슬기를 칭찬하였다. 그때로부터 이 강을 해와 란의 이름을 따서 해란강이라 불렀단다.

해란강은 력사의 강이다. 청나라의 “봉금령”으로 인적이 드물고 짐승들이 득실거리던 황량한 땅에 개척의 팽이를 박고 화전의 불길을 지핀 사람은 두만강을 건너온 조선이주민들이었다. 아득한 해란강류역의 생명을 갈아번지고 벼꽃을 피운것도, 황폐한 언덕을 갈아엎고 곡식을 심은것도 이들이었다. 용드레우물가에 동네를 이루고 자그마한 룡정에 여섯 개나 되는 중학교를 세운것도 이들이었다. 사책에 기재되다 싶이 룡정은 중국조선족문화의 발상지였고 한때는 “간도의 서울”이라는 미명까지 갖고있었다.

1919년 3월 13일, 룡정에서 반일대시위가 벌어졌다. 망국의 비운과 수난의 아픔을 가슴속에 화약처럼 묻고있던 인민들이 일제침략자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는 거족적인 장쾌한 거동이었다. 조선땅을 삼키고도 욕심이 꺼지지 않아 침략의 마수를 이곳까지 뻗친 일제에 대한 성세호대한 민심의 노도였다. 적수공권인 민중대오가 호호탕탕히 일제 동북침략의 아성인 룡정총령사관으로 밀려갈 때 일군경과 위만군이 총탄으로 진압하였다. 순식간에 룡정거리는 피바다로 되고 통곡소리는 하늘을 메우고있었다. 이 반일시위가 비록 탄압은 되었어도 해란강반에 울린 첫 봄우리는 력사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상기도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해란강은 룡의 강이다. 룡이란 상상으로 형상화된것이지만 그 숭엄하고 화려함은 우리의 머리속에 실물처럼 남아있다. 용드레우물에서 룡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이어 그 룡이 구슬을 물고 내려앉았다 하여 그 자리에 “룡주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며 말발굽산아래 룡이 미역을 감았다는 “룡지”, 룡의 등어리처럼 생긴 “룡산”이 룡정의 전설을 더 아름답게 장식한다.

옛사람들은 인걸이 지걸이라고 했다. 풍수가 좋은 곳에서 인재가 배출한다는 뜻이다. 지금 딱 그렇다고 단정할순 없지만 룡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룡정에서 명인들이 용솟음쳐나온것은 사실이다. 두루 짚어보면 저항시인 윤동주, 전국로동모범 김시룡, 자치주 제1임주장 주덕해, 전국렬군속모범이자 로동모범인 리옥금, 우수한 귀향지식청년 려근택, 붉은 기러기 리호천, 중국과학원 원사 강경산...

해란강은 어머니의 강이었다. 이 땅의 아들딸들을 포근히 보듬어안고 풍만한 가슴으로 키워온 어머니의 품이었다. 울울창창한 삼림과 일망무제한 전야의 일초일목, 그리고 날

짐승, 길짐승, 짐짐승 할것없이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듯 해란강의 은총을 떠날수 없다. 그래서 해란강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싣고 우리와 함께 있는것이다.

때는 1946년, 해방을 맞은 이듬해 봄이었다. 지지리 어둡고 참혹한 겨울은 지나가고 쨍쨍 얼음장이 꺼진다. 해동이 되어 때지은 성에장이 력사의 너겅처럼 흘러내린다. 양지바른 강언덕아래 버들방천의 햇가지들은 벌써 병아리솜털같은 개지를 엮고 봄바람에 하느적거리고 모아산기슭에서는 누군가 화톳불을 놓은듯 진달래가 벌겅게 피어오르고있었다.

토지분배가 한창 진행되고있는 모아산아래 영송촌마을은 요즘 밤낮없이 시끌벅적 끓어번지고있었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그저 걷는것도 춤이었다. 낮에는 경쾌한 농악소리가 들썩하였고 밤에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인 철산이네 집에 모여들어 노래와 춤으로 날을 밝히곤 하였다.

오늘도 토지분배는 계속되었다. 구름 한점 없이 화창한 하늘가에 아침해가 두둥실 떠오르자 사람들은 마을서쪽에 있는 “기와등판”언덕밭으로 바람처럼 밀려갔다.

이즈음에는 어느 누구도 낮에 집에 붙어있으려 하지 않았다. 늙은이, 젊은이 지어 아이들까지도 악질지주 한주삼과 부농 채부해를 청산하던 그 열정 그대로 토지분배장소로 뛰여다녔다. 지금 “기와등판”으로 나가는 사람들속에는 먼저날 이미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도 있고 래일이나 모래쫄 땅을 분배받을 농민들도 끼여있었다. 누가 분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심정은 매일반이었다.

빈농 김철산은 오늘따라 류달리 후둑후둑 뛰는 마음을 가까스로 건잡으며 사람들속에서 성큼성큼 걸었다. 그는 간밤에 쪽잠으로 대충 잠을 설치고 반나절이나 날밝을 때를 기다려서 해가 뜨자 아침을 먹는등마는등하고 집에서 뛰쳐나온

참이다. 그도 그럴것이 오늘 그는 맨 첫차례로 토지를 분배받게 되었던것이다. 철산이는 지금 가슴이 뚫뚫해서 견고있는것이 아니라 날고있는것 같았다.

얼마전까지만도 남들처럼 김철산이란 멋있는 이름 석자를 갖고있으면서도 항용 “김쿠리”라고 불리어오던 그였다. 10여년간의 머슴살이와 3,4년간의 소작살이로 간난고초를 다 겪으며 살아온 그가 얼마전에 악패지주 한주삼이 쓰고 살던 팔간기와집을 분배받아 쓰고 살게 되었는데 오늘은 또 한주삼이 소유했던 “기와등판”의 상등전까지 분배받게 되었으니 어찌 흥분없이 이날을 보낼수 있으랴!

철산이는 보통키에 뼈골은 굵으나 결불은 살이 없어서 나약해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래도 아홉살부터 머슴살이를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탓에 무슨 일을 하나 서투르지 않고 강단이 있었다. 그런 철산이를 보고 그의 모친 리성녀는 가끔 대견한 생각이 들어 세상에 일해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옳다며 한탄섞인 소리를 하곤 하였다.

결팩스러운 성미를 모아붙인듯한 술진 눈섭아래에 모닥불처럼 이글거리는 두눈, 파란많은 인생살이에 다듬어지고 굳어진듯한 미끈한 얼굴, 너그럽고 후더운 인상을 던져주는 휘우듬한 입술, 무척 성깔져보이는 상큼한 코는 드팀없고 강직한 패기와 굳센 의지를 보여주고있었다.

철산이는 오늘 회색토스레바지저고리에 검정색광목조끼를 입었다. 옷은 비록 낡은것이여서 뿌연게 바래고 군데군데 기운 자리가 유표하게 드러났으나 어제밤에 안해 금순이가 급히 빨아 솔뚜껑우에다 말린것이여서 웬간히 산뜻해보였다. 그는 청산때 받은 허연 수건으로 막 깎은 머리를 동이였다.

철산의 뒤켠에서 녀자의 키로는 훨씬 큰편인 그의 모친 리성녀가 옆에 숨을 놓고 누비여 만든 해냔은 포대기로 어린

손자 칠성이를 들쳐업고 따랐다. 철산의 안해 금순이와 시집 간지 몇달 안되는 철산의 누이동생 순희는 리성녀의 량견에 가지런히 서서 걸었는데 둘 다 한모양으로 흰 저고리에 깎장 치마를 받쳐입었고 얼마전에 철산이가 똑같이 삼아준 초신을 신었다. 좀 먼데서 보면 이 올케와 시누이는 그저 하루한시에 난 쌍둥이 같았다. 한것은 둘 다 키도 어슷비슷하고 몸매마저 어상사하기때문이었다.

순희는 걸으면서 한편 어린 조카 칠성이와 재롱질을 하였다. 칠성이는 제판에도 온 짐식구들이 오늘따라 류다르게 기뻐하고 흥분하는 기미가 알렸는지 할머니의 잔등에서 폴썩 폴썩 뛰며 순희한테 고사리같은 손을 잡힌채 캐득캐득 웃어 대었다.

김철산네 일가의 뒤견에는 친숙이라고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철산의 삼촌 김준오령감이 목안으로 뜨거운것을 연신 삼키며 따르고있었다. 김준오는 평시에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였지만 오늘 그는 자기가 땅을 분배받는것보다도 더 격동되어 목청만 좋다면 노래라도 한가락 풀어놓을 그런 심정이었다.

그렇듯 김준오령감은 조카집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그도 그럴만한 일이 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자손이 번성치 못하여 팔대장손인 철산이까지도 외독자이므로 그에 대한 준오령감의 생각은 더구나 끔찍하였다.

철산이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타고장으로 떠돌아다니며 겨우겨우 연명해갈 때 준오령감은 자기 힘이 모자라서 집안의 기둥인 철산이를 고생시키는것이 조상들앞에 죄짓는것 같고 불효하는것 같아 땅을 치며 운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런데 오늘 철산이가 모주석과 공산당의 은덕에 땅을 분배받게 되었으니 대대로 내려온 소망을 이루게 된것이였다.

(땅을 분배받는 네 기쁨도 여복하랴만 네 아무리 기쁜들 살다살다 이런 날을 보게 된 이 삼촌보다 더 기쁠소냐!) 하는것이 지금 준오령감의 심정이였다. 그래서 준오령감은 수격수격 걸으면서 가끔 북쪽산비탈 아래턱에 모셔져있는 저세상에 간 형님의 무덤을 눈물이 핑 어려 올려다보곤 한다. 이 무덤은 몇년전까지 외로이 연접하강가에 묻혀있던것을 그가 손수 이장하여 이 고장으로 옮겨온것이였다.

준오령감은 형님이 고생고생하다가 번한 날을 하루도 못보고 세상 뜬 일이 오늘따라 새삼스레 더욱 애달팠고 철산이가 땅을 분배받는 이 경사를 형님이 보지 못하는것이 가슴을 도려낼만큼 원통하였다. 그래서 그는 형님의 봉분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형님, 세상 뜰 때 철산이한테 디디고 설 땅마저 못남겨주어 눈을 못감으시겠다더니 이제 무덤속에서라두 어서 내다보시우. 지금 철산이가 땅을 받으러 가우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승에서 마음을 놓으시우!)라고 녀두리를 하며 눈물을 삼켰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오자 토지분배가 시작되였다. 남녀로소가 한데 운집하여 봄비는 속에서 영송하촌 농회주임인 태성민이 아이들이 쓰던 공책을 벌걱벌걱 펼치며 소리쳤다.

“모두들 조용하시우다. 오늘 토지를 분배받을 집은 통구아홉집인데 맨처음 김철산농민이 분배받겠수다. 에… 빈농 김철산, 식구 4명, 수전은 담에 미루고 한전으로 ‘기와등판’ 일등전 두집 세푼, 자… 이쪽편에서 자리를 좀 내시우다. 하, 이거… 자리를 내야 받을 떼지…”

태성민은 사람들을 해집고 나서더니 꼬투리연필끝으로 아래쪽을 가리켰다.

“저아래 꼬부랑비술나무 서있는 저 골땅부터 이 웃편으로 올리 장사래 열이랑이요, 자, 재이시우.”

그러자 공작대동무들이 이랑을 하나하나 세더니 마지막 고랑끝에 금을 그어놓았다. 사람들이 우야하고 그리로 밀려 내려가며 환성을 올렸다.

“야, 김쿠리가 공산당덕분에 진짜 번신했다!”

“철산의 일숨씨에 저런 땅이 차례졌으니 호랑이한테 나래가 돌친 셈이 됐구나!”

“아, 그뿐인가! 한주삼이네 덩실한 팔간기와집이 차례졌겠다, 여보게 철산이, 뭘 하고있나? 날래 덩실덩실 춤이라두 추라구!”

“저길 좀 보오, 준오령감이 너무 기쁜김에 락투를 하오…”

마을농민들은 모두 이렇게 제일처럼 기뻐하며 발지경쪽으로 내려갔다.

목갑총을 어깨에 메고 솜군복을 단정하게 받쳐입은 공작대 대장인 왕국진이 한동안 어리덩덩해서 어쩔줄 몰라 매삼거리는 철산이한테로 다가왔다. 왕국진은 한족이지만 조선말에 능한분이였다. 그는 수면부족으로 하여 벌겍게 충혈된 눈에 그윽한 빛을 담고 “김철산토지”라고 네귀번뜻하게 붓으로 쓴 패말을 가져다가 철산이앞에 내밀었다.

“자, 옛소, 동무의 손으로 이 패말을 땅이 꺼지게 박소! 오늘부터 이 밭은 한주삼의 밭이 아니라 동무의 밭이요, 이 밭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면서 공산당과 모주석의 은덕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겠소. 자, 어서 박소!”

“왕대장동무, 고맙수다!”

철산이는 물기어린 소리로 대답하며 정중히 패말을 받았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코언저리가 시큰해나서 손바닥이 빠개지도록 박수를 쳐댔다. 누군가 먼저 첫마디를 떼여서 노래 소리가 터졌다.

오막살이 우리 집에도
 광명한 새아침 닥쳐왔다네
 에헤라 좋구나 데헤라 좋구나 좋다
 새로운 우리 살림 꾸려보세

...

박수소리, 노래소리속에서 철산이는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도끼를 툇 툇 휘둘러 자기 이름이 쓰인 패말을 드놀지 않게 깊이깊이 땅속에 박아넣었다. 그리고나서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쥔채 오래도록 묵상에 잠겨 그것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금싸라기처럼 귀중한것이였다. 부드러운 흙감각이 혼신을 찌릿하게 달구고있었다. 눈물이 찔끔 솟았다. 스물일곱해를 살면서 이 땅이 없었던탓으로 겪어왔던 가슴저런 추억들이 밀물처럼 안겨왔다.

땅, 이 땅이 없어서 아버지는 정든 고향을 버리고 두만강을 건너 살기 좋다는 만주로 오지 않았던가. 그때 철산이를 업은 아버지는 이역의 강추위에 헉헉 흐느끼는것만 같았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아버지는 리향의 설움에 북받쳐 통곡은 못하고 속으로 운것이였다. 그러나 감자가 목침갈고 조이삭이 개꼬리같다는 만주에 와서도 그들의 가련한 운명은 그대로였다. 땅이 없는 그들의 신세는 길가의 조약돌처럼 채우고 짓밟혀야 했다. 실로 땅은 농민들의 명줄기였다. 것처럼 부지런하던 불쌍한 아버지도 자기의 땅이 없는 탓으로 평생의 고역에 지칠대로 지쳐서 애닦게 세상을 떴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도 미음 한사발 따뜻하게 마셔보지 못하고 숨이 지기 직전 아홉살난 철산이를 머리맡에 얹혀놓고 죽어도 눈을 못감겠다고 피에 절은 마지막 말을 곁집지 않았던가!

땅, 바로 이 땅이 없어서 그들 온 집식구는 산지사방에 흩

어저 제각기 풍상고초를 겪으며 여러해를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야 했고 나 어린 막내누이동생 영희는 네살에 생리별을 한채 영영 생사여부마저 알길없는 사람이 되고말았다.

어디 그뿐이라! 땅, 바로 이 땅이 없어서 철산이는 아홉 살부터 뜨내기머슴군이 되어 남한테 살점을 뜯기우고 피를 빨리우며 살아야 했다.

열살때 철산이는 로투구탄광에 가서 왜놈광산주의 뽀이가 되어 세퍼드를 먹이는 심부름을 했다. 어느 한번은 일을 잘못했다 하여 광산주 마름놈한테 벌을 받아 시격을 두끼나 먹지 못하였다. 너무도 배고픈 나머지 세퍼드한테 먹일 고기점을 훔쳐먹다가 그만 그 마름놈한테 들키였다. 이리같이 악착스런 그 놈은 어린 철산이를 단통 세퍼드굴에 처넣었다. 사람을 뜯어먹는데 이골이 든 세퍼드들은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철산이한테 달려들었다. 그러나 개들도 왜놈과 그 앞잡이놈들보다는 좀 나아서 철산이가 자기들한테 먹이를 주는 뽀이임을 알아보고 슬슬 물러서며 물어뜯지 않았다. 그때 철산이는 인심 후한 한 늙은 한인의 구원을 받아 요행 살아날수 있었다.

철산이는 스무살에 석문골 민지주네 집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어려서부터 그 집 행랑머슴으로 살던 금순이와 결혼하였다. 철산이는 금순이를 데리고 민지주네 집에서 도망쳐 이곳 영승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철산이는 한주삼네 소작을 부치는 한편 그자의 허락을 받고 두어짐되는 강역 버들밭을 수전으로 풀었다. 버들뿌리를 뽑아내고 돌들을 주어내고 두령까지 앓히느라 3년동안 술한 고생을 하였다. 그래서 3년만에 첫 소출을 내었는데 그해따라 농사가 특별히 잘되었다. 그런데 가을철이 되자 낫을 대기전에 하루는 한주삼의 아들 한장도가 하인들을 끌고 와서 철산이네 논밭에 뛰어들었다.

철산이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왜 남의 벼를 베여넘기는냐고 따졌을 때 한장도의 입에서는 생똥같은 소리가 뭉치처럼 떨어졌다. 철산이가 영승에 와서 자리를 잡을 때 돈을 끈 빗대신 논과 곡식을 몽땅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날강도라도 한심한 날강도였다. 뜻밖의 봉변에 철산이가 주먹을 쥐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어데 있느냐며 달려들자 한장도는 제 집 권세를 믿고 되려 철산의 뺨을 후려치며 짐승처럼 으르렁대는 것이었다. 철산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퍼런 분노가 갈개치며 육신의 피를 끓게 하였다. hing소리와 함께 한장도한테 달려든 철산이는 제격 그 놈을 건곤잡이로 논밭속에 처박아놓았다. 그리고는 깔고 앉아 바위돌같은 주먹으로 육장벌레되게 두들겨패주었다.

위세당당한 한주삼의 아들을 목사발이 되게 했으니 무사할리가 없었다. 철산이는 그날로 분주소에 붙잡혀갔고 또 그 놈들에게 끌려 북만에 가서 광복이 터지던 그때까지 근로봉사를 했다. 그러다가 일제가 망한 후에야 철산이는 해방을 받고 영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철산이가 이처럼 소름끼치는 학대를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해온 것이 죄다 농사군이 제 땅이 없는 탓이 아니었던가!

땅이란 농사군한테 진정 목숨이었다. 하니까 그는 오늘 제 목숨을 다시 찾은 셈이었다.

철산이가 하늘과 같은 기쁨을 안고 흐느끼고 있을 때 왕대장이 그한테로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며 축하해주었다. 순간 철산이는 엎어지듯 왕대장의 품에 안기며 부르짖었다.

“왕대장동무, 내 꼭 공산당이 준 땅을 잘 다루겠소이다. 내 꼭 잘 다루겠소이다!”

“웁소, 철산동무 꼭 그래야 하오!”

왕대장은 다시 한번 철산의 어깨를 다독이고 나서 마을농

민들에게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농민 여러분, 금방 철산농민이 한 말을 모두 들었지요? 이 동무는 우리 농민의 마음속의 말을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과 모주석의 은덕을 잊지 말고 분배받은 땅을 잘 다루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민당반동파와 최후의 결전을 하고있고 전 중국을 해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땅의 주인답게 농사를 잘 지어 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수다!”

격동된 농민들은 우렁차게 웨쳤다. 그 소리에 나무가지에 앉았던 참새들이 푸르르 날아갔고 언덕너머에서 다시 메아리쳐왔다. 그 함성의 여운이 가라앉기도전에 여직 울렁이는 심정을 가까스로 억제하고있던 철산이가 두팔을 버쩍 추켜올리며 구호를 불렀다.

“공산당 만세!”

“모주석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마을사람들도 철산이를 따라 두팔을 높이 들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창길동무, 뭘 하고있소? 어서 농악을 울려야지…여러분, 토지를 분배받은 철산동무를 축하해서 모두들 한껏 노래를 부르고 춤들을 춥시다!”

왕대장이 이렇게 소리치자 창길이가 조직한 농악대가 징과 북을 울리며 새납을 들썩하게 불어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철산이네 밭머리에서 굉장한 춤판이 벌어졌다. 양기좋은 창길이가 장단에 맞추어 즉흥가사를 엮어 성수나게 먹이였다.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 좋아라
 공산당의 은덕에 토지를 분배받아
 철산이 형님이 싱글벙글 좋아한다
 에헤야 상사되야 데헤야 상사되야

...

그 노래에 맞추어 늙은이도 젊은이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머리에 털이 돋아서 여직껏 춤과 담을 쌓고있던 철산이도 입이 벅 사자가 되어 춤판에는 감히 나서지 못하고 제 자리에서 팔다리를 들었다놓으며 기쁨을 토한다. 왕대장은 자기는 춤판에 뛰어들지 않고 남들을 춤을 추라고 뺨질나게 끌어낸다. 그러나 실상 바깥에서 구경한다고 서있는 사람들도 성수나는 농악에 부지중 어깨를 들썽들썽하며 선자리춤을 추고있었다. 여기저기서 “좋다! 좋지!!” 하는 탄성들이 런던아 터졌다.

겨울을 이겨낸 산과 들에 새 삶의 숨결을 톡톡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여오르고있었다. 성수나는 농악소리에 갓 해동된 해란강도 은물결을 반짝거리며 흥겨웁게 노래를 부른다. 늘찬 모아산마루까지 파랗게 덮은 소나무, 이깔나무숲도 흥에 겨워 너풀너풀 춤을 추고있었다.

우리의 주인공인 김철산이 땅의 주인이 된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차례

서장	1
새싹	1
계시	21
탈선	42
재출발	62
창길이	81
진달래	109
김도유사	134
과원집	158
충돌	180
바람부는 가을	204
야밤중의 검은 그림자	220
돌파	236
세밀에 있는 일	257